

근대 한국과 헝가리 관계사 연구

- 『噶蘇士傳』의 수입과 독립정신의 고취를 중심으로 -

박 성 순*

국문초록

코슈트는 1848년 헝가리에서 전개된 3.15 시민혁명과 독립전쟁을 이끈 인물로서 유명하며, 이 때문에 헝가리 민족사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억압과 압제가 자행되던 시기에 헝가리 마자르 민족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아 오스트리아의 귀족주의 지배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 결과 헝가리 민족의 봉기를 이끌었으며, 비록 그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1867년의 대타협을 통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슈트가 헝가리의 민족영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06년 말에 간행된 『조양보』를 시작으로 하여, 1908년 근대 한문소설 작가인 이보상의 번역을 통해서였다. 이 시기의 변화로 주목되는 것은 을사늑약 체결 때부터 고종에게 의심받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 존재하는 민족갈등이 『갈소사전』의 번역 단계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을사늑약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관계처럼 양 민족이 평등한 이원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호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안의 민족 차별에 항거한 ‘갈소사’ 즉 코슈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는 민족 독립을 위해 힘쓴 애국자이자, 서양인에 맞서 싸운 동양인종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미담은 『서북학회월보』·『대한홍학보』·『대동학회월보』 등과 같은 계몽잡지에 소개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민족적 차별에 저항하여 평등권을 주장한 의사나, 옥중에서도 존엄을 아끼지 공부에 매진했던 선비, 즉 실력양성론의 표본으로 선전되었다.

각국의 흥망사 및 독립사, 영웅·위인의 전기, 민족의식을 고취한 도서 등이 유행하던 애국계몽운동시기의 역사물들이 교과서로 다수 등장하면서, 일제는 통감부에서 총독부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금서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도서의 발매와 반포를 금지시켰다. 『갈소사전』은 일관되게 이러한 금서목록에 들어있으면서 탄압을 받았다. 이 책이 당시 청년들에게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일제의 침략의도를 비판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애국계몽운동 시기 근대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장기적 독립항전의 중견인물들로 성장해간 것을 고려할 때 일제의 금지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던 『갈소사전』은 청년들의 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주제어] 라요시 코슈트(噶蘇士),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噶蘇士傳』, 애국계몽운동, 한국독립운동

* 단국대학교 부교수 / tiger97@dankook.ac.kr

| 목 차 |

I. 머리말	V. 『噶蘇士傳』의 한국 전래
II. 헝가리 독립전쟁과 코슈트의 위상	VI. 애국계몽운동에 반영된 코슈트
III. 조선과 헝가리의 수교	VII. 맺음말
IV. 을사늑약과 헝가리	

I. 머리말

한국의 독립운동 기간 중에 미국, 중국, 일본, 노령 연해주 지역에서 전개된 한인 독립운동에 비해서 유럽 지역에서의 활동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을사늑약의 허구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의 지시를 받고 헤이그에 파견되었던 특사의 일원인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위해서 상하이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에 파견되었던 김규식에 의해서 설립된 파리위원부의 활동 정도가 대표적인 활동상으로 언급되어진다.

1930년대에는 서영해라는 인물이 유럽에서의 외교 및 선전활동에 종사하였던 내용이 최근에서야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출생으로 10대 후반에 3.1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돕다가 장건상·조소앙 등의 권유로 1920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1929년부터 파리 시내에 고려통신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국 관련 저술들을 출간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특파원으로 활동했다. 1936년에는 임시정부로부터 주법특파위원에 임명되었고,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된 이후에도 임정과외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1945년 3월 12일 임시정부의 駐法代表로 임명되었다.¹⁾

1925년 일본 외무성에서 조사한 유럽거류 한인 통계를 보면, 독일에 52~53명, 스위스에 2명, 이탈리아에 2~3명, 프랑스에 150여 명, 네덜란드에 40여 명, 영국에 10명 등 모두 합하여 260명 정도가 거류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 교민뿐 아니라 유학생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일제의 전시총동원 체제가 발동됨에 따라 구미 이주나 유학의 길이 폐쇄됨으로써 유럽 거류한인들의 규모도 크게 줄어들어 집단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한인들은 1919년 11월 19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민단체인 在法韓國民會를 조직하였고, 1920년 10월 31일에는 재법한국민총회의 명의로 한국민국제연맹개진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1921년 1월 1일에는 유럽 최초의 한인유학생단체인 留德高麗學友會가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되었다.²⁾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2005, 151쪽; 장석홍,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법특파원 서영해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김민호, 「서영해의 재법 선전활동과 독립운동」, 『서강인문논총』 53,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2) 고정휴,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3~15쪽.

본고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백 주년과 아울러 한국과 헝가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독립운동과 헝가리와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유럽에서 거류하던 한인들의 숫자가 워낙 적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도 현재까지는 네덜란드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헝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이 헝가리와 근대적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전해진 라요시 코슈트(Lajos Kossuth, 噶蘇士)라는 헝가리 독립운동가가 일제의 침략 앞에 놓인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헝가리 독립전쟁과 코슈트의 위상

헝가리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스키타이족과 훈족으로 믿듯이 유럽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유럽으로 정착하면서 유럽에 동화되고 유럽의 구원자로서 역할하려고 하였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기에 이들의 정체성이 공고화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였다.⁴⁾

16세기 초반부터 헝가리는 서쪽으로는 합스부르크 제국과 동남쪽으로 오토만 제국 사이에 끼어있었다. 헝가리 왕국은 오토만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면서 독립을 상실하였다. 그 나머지 부분도 합스부르크 제국의 손에 떨어졌다. 헝가리인의 1848년 3.15 시민혁명과 독립전쟁(freedom fight)의 연원은 17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합스부르크 제국이 헝가리 영토를 성공적으로 되찾았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전체적 통치력이 전체 헝가리 영토에 미치게 되었다. 헝가리인들의 자유를 위한 첫 번째 투쟁은 1703년과 1711년 사이에 일어났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를 지원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헝가리의 경영을 놓고, 1830년대와 1840년대 초반에 헝가리 귀족과 정치인들 사이에 두 그룹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온건개혁파이고 하나는 정치구조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원하는 그룹이었다. 급진파의 지도자가 바로 라요시 코슈트였는데, 그는 하급귀족이자, 변호사였고, 언론인이었다. 젊은 시인인 산도르 페토피(Sandor Petöfi)도 이 그룹에 속했는데, 1848년 3.15 시민혁명과 독립전쟁의 아이콘이 되었다.⁵⁾

억압과 압제가 자행되던 시기에 헝가리 마자르 민족은 독립을 위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⁶⁾ 1848년

3) 헝가리인 ‘마자르’가 몽골에서 활동하던 이태준과 의열단의 폭탄 제조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아직 그의 정확한 이름조차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 최근 마자르의 실체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된다. 양지선, 「헝가리인 ‘마자르’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주관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헝가리 독립운동의 기억과 교차’(2019.3.29) 참조.

4) 김지영, 「두 가지 정체성의 공존: 헝가리인의 비(非) 유럽적 기원과 유럽적 ‘자기인식」, 『통합유럽연구』 6, 2013, 1~21쪽.

5) Mozes Csoma,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its comparison with the Hungarian struggle for freedom in the mid 19th century*, pp.1~2.

6) 김새미,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대타협안의 한계와 군약대·군대문화현상을 통한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유럽연구』 35: 4, 한국유럽학회, 2017, 186쪽.

3월 3일 코슈트는 보헤미아 지방의 신분제의회에서 오스트리아의 귀족주의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모든 민족을 위한 대의 기구를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는 국왕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확장된 청원형태로 표출되었고 이후 거듭된 탄압으로 1848년 3월 13일 공개적인 봉기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군대가 이를 저지하고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충돌이 확산되었다. 결국 3월 15일 황제 페르디난트 1세가 칙서를 통해 오스트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을 허용하겠다고 제시하였고 빈의 권력은 시민위원회가 넘겨받았다. 24인의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실질적인 권력이 국민방위대와 학도의용군 수중에 있는 상황이었다.⁷⁾

코슈트는 임시 권한을 가진 의회에 의해 국민방위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오스트리아군과의 격전을 치른 후 1849년 4월 14일 코슈트는 전국 대의원을 쾰름(Köln)에 소집하여, 국민방위위원회 의장(호국위원장)의 자격으로 헝가리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4개 조에 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헝가리국은 지금 이후부터 자유독립의 나라가 됨, (2) 오스트리아 조정의 헝가리에 대한 죄가 셀 수 없이 많으므로 지금 이후로 배척하여 영원히 관계를 단절함, (3) 헝가리국은 구주의 여러 이웃국가들과 더불어 수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결같이 공법을 따름, (4) 독립한 후 신정부를 조직하고 그 방안은 일체 국회의 결의를 따라 위임한다는 것이었다.⁸⁾ 이는 훗날 3.1운동 때 공포된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과 그 구성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1848년 3.15 독립전쟁은 1년 반 이상을 지속했지만, 합스부르크 제국과 러시아 짜르의 연합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다.⁹⁾ 러시아군이 도착한 뒤 전혀 가망 없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코슈트는 자신의 직위를 혁명군 장교인 괴르게이에게 넘겨준(8. 11) 뒤 투르크로 피신했다.

1851년 미국이 투르크에 군함을 보내 억류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던 코슈트를 영접하였다. 미국이 코슈트를 인수한 정치적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헝가리 국민들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코슈트의 상황을 미국이 동정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 투르크도 한 척의 군함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그를 호송하였다. 코슈트는 3년 간 옥중에서 익힌 영어를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자유를 주제로 한 연설을 하여 청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 후 영국에 돌아갔을 때에도 미국에서와 같은 환영을 받았다. 그 사이 헝가리에 남아 있던 그의 동지들은 오스트리아·러시아의 학정으로 거의가 살해당하거나 헝가리를 떠난 상태였고, 겨우 존재한 인물은 전 법무장관(사법대신) 페렌츠 데아크(Ferenc Deák, 狄渥)이었다.¹⁰⁾

1859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와 개전하여 이탈리아 속지를 잃게 되자 헝가리 인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1860년 5월 헝가리 의원 약간 명을 오스트리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이때 데아크가 彼斯得(부다페스트)의 대표로 피선되어 (1) 金牛憲章¹¹⁾의 회복과 시행, (2) 헝가리 정부를 부다페스트에 두고 1848년의

7) 김새미, 위의 글, 193쪽.

8) 梁啓超(著), 李輔相(譯), 『匈牙利愛國者 馮蘇士傳』, 중앙서관·박문서관, 1908, 41~43쪽.

9) Mozes Csoma, opcit, p.2.

10) 梁啓超(著), 李輔相(譯), 앞의 책, 53쪽.

11) 1222년 헝가리 국왕 앤드러시 2세가 귀족들과의 타협을 바탕으로 제정한 헝가리헌법. 왕과 교회의 권력을 제한하고, 중간 귀족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귀족들이 왕에 대해 무력 저항할 수 있음을 규정함(이상협, 『헝가리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57쪽).

고사(1848년 3월 오스트리아 황제 페르디난트 1세가 헝가리 독립내각 구성을 허가한 일)와 같이 할 것, (3) 혁명시대에 다른 나라로 추방된 지사들을 모두 귀국시키고 그 田里를 반환할 것 등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탐탁치 않았으나, 시세가 궁박하였으므로 1867년 7월 7일에 부다페스트에 친립하여 금우현장을 지킬 것을 맹서하고 헝가리 왕을 겸함으로써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성립하게 되었다.¹²⁾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에서는 1867년 대타협 이후 코슈트가 남은 만년의 여생을 편안히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狄渥이 헝가리를 再造함은 실로 噶蘇士의 遺教를 한결같이 따름이라. 1867년에 권리를 회복한 이래로 헝가리의 진보가 하루에 천리라. 噶蘇士가 크게 위안을 받아 이탈리아의 산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格致의 學을 연구하여 그 천수를 마쳤다. 1894년 3월 21일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 가니 향년이 92리라”라는 내용이 그것이다.¹³⁾

그러나 사실은 이와 좀 달랐던 것 같다.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강경론자였던 코슈트는 대타협을 추진한 데아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나폴레옹 3세의 초빙을 받고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발발에 때맞추어 헝가리에서 봉기를 조직하도록 요청받은 코슈트는 자신의 웅변술로 영국이 프랑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약속된 국제연대 계획은 1866년에 나폴레옹 3세가 프란츠 요제프 1세와 휴전협정을 맺음으로써 무산되었다. 이듬해 코슈트는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남아 헝가리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데아크의 지도로 오스트리아 황실과 화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코슈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1867년 대타협이 결정되기 전 날 밤에 타협주의자들을 저주하는 공개서한인 ‘카산드라 서한’을 발송하여 대타협을 반대하는 이들을 선동했으나 그것이 가결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말년에 그는 쓸쓸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으며 헝가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이 한결같이 고집하던 신념을 거부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떠났다.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 헝가리와 대타협을 시도한 것은 당시의 정세와 관련이 깊다. 1848년 시민혁명 이래로 헝가리를 비롯한 소수 민족들이 독립저항을 강하게 표했고 1866년 오스트리아가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독일과 이탈리아 지방 통치권(베네치아)을 넘겨주게 되어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제국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오스트리아는 제국의 힘을 지속하고 내부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 헝가리와 대타협을 시행하였고, 헝가리는 독일의 팽창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헝가리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선택지로서 대타협을 감행했다. 대타협을 추진한 헝가리 집권층은 제국과의 타협으로 반독일, 반러시아 외교정책이 헝가리를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인식했다.¹⁴⁾

1867년의 대타협(Ausgleich)은 유럽에 전대미문의 이중제국을 만들어 내었다. 1867년 6월 8일(음)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2세가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국왕에 즉위한 것이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가 헝가리의 국왕을 겸한다는 同君연합체제로서의 이중제국의 판도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포함하여 동쪽으로는 트란실바니아, 북쪽으로는 갈라치아, 남쪽으로는 크로아티아 전역과 보스니아의 일부를 포함하였다. 이 제국은 동일한 합스부르크의 통치자가 언제나 오스트리아의 황제이며 헝가리의 국왕이라는 사실에 의해 결

12) 梁啓超(著), 李輔相(譯), 앞의 책, 54쪽.

13) 梁啓超(著), 李輔相(譯), 위의 책, 55쪽.

14) 김세미, 앞의 글, 196쪽.

합되었다. 공동의 이익에 관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었다.¹⁵⁾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체제에서는 국방, 외교, 재무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가 공동정부 운영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동체제에서 오스트리아가 강한 발언권을 행사했다고 평가받는다. 때문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다. 제국은 군대가 연합군임을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오스트리아 지휘부에 있었다. 이러한 이원주의는 여러 비판을 낳았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역시 코슈트였다. 그는 헌법의 기본원칙은 이원주의이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이원체제가 작동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영향력과 헝가리의 영향력이 불균등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아무튼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양국의 대타협으로 시작된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1918년 몰락하였다.¹⁶⁾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패함으로써 제국이 해체된 것이다⁷. 그 결과 제국의 통치를 받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남 슬라브 지역과 체코, 슬로바키아 등 서 슬라브 지역이 독립하여 각각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신생국이 되었다. 헝가리는 영토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1/3으로 축소되었고, 인구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오스트리아는 거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축소되어 유럽의 소국으로 전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허약한 체제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문제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었고, 다른 제국들에게도 2개 이상의 민족이 혼재하는 복합민족국가의 위험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¹⁷⁾

Ⅲ. 조선과 헝가리의 수교

한국과 헝가리가 정식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1892년 6월 23일 대한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간에 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된 것이다. 『고종실록』에 이 당시의 장면이 헝가리에 관한 유일한 기사로 남아있다.

조선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朝奧修好通商條約〉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 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 [大奧國大皇帝兼蒲希米亞大君主享加利大傳教君主]는 양국이 우호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인민이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로 議定한다. 이에 따라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駐劄日本署理辦事大臣 通訓大夫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權在衡을 파견하고,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는

15) 박영재,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국가체제와 민족문제」, 『경주사학』 26, 경주사학회, 2007, 141쪽.

16) 김새미, 앞의 글, 196~203쪽.

17) 김지영,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와 동유럽 민족 국가의 성립요인 연구」,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52, 한국세계문화학회, 2019, 141쪽.

駐劄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 佛郎昔司茄賽夫 2등 훈장, 鐵冠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 로제트 비르게본 [洛蕊特畢格勒本]을 파견하여 모두 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이에 의정하여 가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 및 양국 인민은 피차 영원한 우호를 돈독하게 하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가 있을 경우에 그 본인과 가족 및 재산은 반드시 피차 보호 받는다.¹⁸⁾

조·오수호통상조약의 비준은 1893년 10월 5일에 성사되었다. 조선이 헝가리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정부가 선택한 개화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은 미국·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벨기에·덴마크의 순으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각국 공사들이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조선의 공사들이 조약을 체결한 수많은 나라들에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¹⁹⁾ 조선은 거중조정 조항을 이용하여 서구열강끼리의 견제를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조약 체결에 앞서 1890년 7월 조선과 우호통상조약체결 협상을 수행할 하아스(Haas) 상하이 주재 총영사가 탄 오스트리아 순양함 트리니(Trinyi)호가 청국 연안에 도착하였다. 총영사는 극동에 20년 이상 체류하였으며 조선에도 잠시 체류한 적이 있었다. 1883년 휴가 기간에 잠시 서울에 왔을 때 뮐렌도르프가 제안한 왕실 세관의 임시직을 수락한 적이 있다.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정부는 지금까지 극동에 파견한 선박 중 가장 규모가 큰 배를 선정하여 전권 위원이 이용하게 하였다. 1871년 폴라(Pola)에서 건조된 트리니호는 길이 60미터, 폭 11미터의 대형선박이었다.²⁰⁾

오스트리아 전함 트리니호의 조선 도착 정황은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파리의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1890년 10월 1일자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과 수호통상조약 협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된 하아스 상하이 주재 오스트리아 총영사는 이때 중요한 문제로 인해 트리니호를 타고 제물포에 오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의 외무아문에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회담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오히려 트리니호의 함장은 협상을 개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단지 예방차 왔을 뿐이며, 조만간 전권 공사가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언을 남기고 조선을 떠났다.

어쨌든 트리니호의 조선 내항은 조선정부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대해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²¹⁾ 트리니호의 함장이 일부 장교들과 서울에 들러 비엔나 내각에서 조선 정부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18)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1892) 5월 29일(음) 병술 2번째 기사.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군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1922); 한국에 관한 개요」, 2007.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 「오스트리아가 조선과 통상조약 협상을 위해 대표 파견(1890.7.28)」, 2005.

21) 한편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간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파견된 사절단의 군의관이었던 가슈빠르(1862~1923)는 자신의 세계일주를 기록한 『4만 마일을 뚫고 증기선으로』에서 몽골 침략을 받은 헝가리와 한반도 역사의 유사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 외 하멜의 조선 표착 및 트리니호가 며칠 간 정박했던 제물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토대로 조선은 더럽고 지저분한 나라로 짧게 소개하였다(조머 모세, 「헝가리 한반도사 연구 시론: 한반도사 관련 출판물과 한국사 교육을 중심으로」).

희망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 정부를 당황케 한 것은 독일의 크린 영사가 키텔(Khittle) 해군 중령을 외무아문 독판에게 소개하면서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사이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었다. 독일 대표의 간섭을 이해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이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통리아문의 수장인 민중목을 플랑시 공사에게 보내서 오스트리아가 황제에 의해 통치되는지, 아니면 왕에 의해 통치되는지?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조공을 바치는지, 아니면 독립국가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플랑시 공사는 크린 영사가 키텔 해군 중령을 도운 것은 양국 간의 조약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조선에 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일 관리들의 관할에 놓이는 것일 뿐, 이는 전혀 해당 국가가 열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당장이라도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monarchie austro-hongroise)과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주시시켰다.²²⁾

1890년 8월 외교·법률 고문으로 미국인 그레이트하우스가 고빙되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의 추천을 받아 초빙된 친일적 외교관이었다. 내무부 협판직을 부여받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황해도 방곡령사건과 제주도 通漁 문제 등을 절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²³⁾ 일본이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사이의 조약 체결에 개입한 것은 서구열강의 세력균점을 이용하여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891년 11월 24일 주차일본서리판사 權在衡이 도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특명전권공사와 회동하여 수호통상조약에 관해 협상하였다.²⁴⁾ 1892년 6월 23일 주일서리공사 권재형이 오스트리아-헝가리국의 주일 특명전권공사 비켈레벤(Baron Roger de Biegeleben)과 도쿄에서 朝壤修好通商條約(Austro-Hungarian and Korean Treaty) 및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을 체결하였다.²⁵⁾ 이 조약의 비준문서가 교환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3년 10월 5일이었다. 오스트리아 전권위원은 벡커(Alois Ritter von Becker) 해군 제독이었다.²⁶⁾ 청과의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²⁷⁾(1882)를 이은 조영수호통상조약(1883)에서 불평등조약의 완결판이 성립되었으므로, 이후 조선이 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이 조약을 원형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조약을 체결했던 일본·미국·청국도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하여 조선이 영국에 부여한 특권을 균점하게 되었다.²⁸⁾

헝가리는 조약 비준 이전부터 도쿄 주재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조선의 대내외정책과 1884년 이후 강대국의 대한정책에 관해 정기적으로 본국에 보고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문서보관소에는 1885~1912년까지 약 1700~1800페이지에 달하는 약 250개의 보고서가 축적되었다.²⁹⁾ 잘루

으로,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회, 2015, 87쪽; 초머 모세, 『한반도를 방문한 헝가리인들의 기억 비망록』, 집문당, 2009 참조.

2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 「오스트리아 전함 즈리니호의 도착(1890.10.1)」, 2005.

23)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193쪽.

24)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3, 1969, 258쪽.

25) 당시 동경주재 오스트리아-헝가리 대사관의 보고문서(독일어)에 위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6) 『고종시대사』 3, 291쪽; 김원모, 『近代韓國外交史年表』, 단대출판부, 1984, 135·139쪽.

27) 조약의 원명은 中國朝壤商民水陸貿易章程인데, 통상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또는 한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으로 불린다.

28)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39, 「청의 국방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2002.

스키(Zaluski) 대사는 1884년과 85년 조선 내부 문제의 격심한 전개와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주축이 된 강대국들의 한국에서의 패권 경쟁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그의 후임자인 코우덴호페(Count Richard Coudenhove)는 1884~1896의 자신이 명명한 ‘한국혁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보고서와 암호 전보의 여러 곳에서 그는 동학운동과 농민소요를 혁명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탁월한 정치적 통찰력으로 일본과 중국 간의 심화되어 가는 갈등과 후일의 전쟁 발발을 묘사했다.³⁰⁾ 1902년 11월 18일 헝가리국 주스코드(Zuskod) 백작이 서울을 방문하여 고종을 알현한 기사도 확인된다.³¹⁾ 헝가리는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비교적 소상히 조선의 내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헝가리에 전권공사를 임명한 것은 1896년 11월이었다. 서울주재 프랑스 총영사 겸 대리공사인 콜랭 드 플랑시가 본국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군부대신 민영환이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 주재 특사 겸 전권공사로 임명되었다.³²⁾ 그러나 1897년 8월 20일 민영환은 해임되었다.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라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정부의 재가도 받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를 대신해서 8월 31일 특진관 민영익이 6개 강대국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나,³³⁾ 이듬해 5월 시종 윤용식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윤용식이 실제 부임할지는 불투명했다. 주불 오스트리아-헝가리 대사관은 윤용식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였으므로 프랑스 정부가 윤용식의 유럽강대국 사절의 직책 임명에 동의하였는지를 문의하였다.³⁴⁾ 결국 1898년 10월 9일자로 윤용식에서 민영돈으로 교체되었으나,³⁵⁾ 1899년 민영돈의 사임으로 이범진이 다시 유럽4개국 공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범진이 맡고 있던 주미공사직은 민영환에게 돌아갔다.³⁶⁾

이범진은 1899년 3월에 워싱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러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 특명전권공사로 신임장을 받았다. 런던에 잠시 체류한 그는 1900년 5월 4일 파리에 도착하였는데 자신의 두 아들을 동반하였다.³⁷⁾ 이범진은 프랑스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한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그리고 러시아 황제에게 본인의 신임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5월 10일경 파리를 출발하였다.³⁸⁾ 조선에서 유럽 공사로 임명된 인

29)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자의 전언에 의해서, Wine에 소재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외교문서보관서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보고가 정지된 1914년까지의 문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분량은 어렵잡아도 1만 매 이상일 것이라는 사실을 추가함.

30) 펜들러, 「19C와 20C 轉換期の 韓國에 관한 오스트리아·헝가리 外交資料」, 『한국정치외교사논총』 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0, 126쪽.

31) 김원모, 앞의 책, 202쪽.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민영환을 유럽 7개국 공사로 임명」(1897.1.18), 2010.

3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다음 문서에 첨부된 서류」(1897.9.22), 2010.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오스트리아-헝가리 대사관의 윤용식 공사임명에 대한 프랑스의 동의 여부 통보 요청」(1898.9.6), 2010.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4개국 공사로 윤용식에서 민영돈으로 대체 통보」(1898.10.10), 2010.

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4개국 공사로 민영돈에서 이범진으로 교체 및 민영환을 주미 공사로 임명」(1899.3.21), 2010.

3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3개국 공사 이범진에 관한 보고」(1900.5.8), 2010.

3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이범진 공사의 파리 출발 전 프랑스 대통령 접견 요망」(1900.6.5), 2010.

물들 중 실제로 현지에 부임한 사람은 민영환과 이범진 뿐이었다. 플랑시 공사에 의하면, 나머지는 무능한 인사들에 대한 형식적인 관직 제수에 불과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³⁹⁾ 그러나 1897년 후반부터 1898년 초 사이에 정부대신의 인사가 러·프·영·미·일의 압력행사로 한두 달 만에 교체되거나 심지어 하루만에 반복을 거듭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⁴⁰⁾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외교권 침탈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이 그대로 부친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아 있다가 1907년 고종의 밀명을 받고 헤이그특사로 활약한 점이 주목된다.

IV. 을사늑약과 헝가리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본은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였다. 그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동시에 열강의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벨기에·덴마크 및 중국 등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관계에 권한을 담당하고 현존하는 관련국들과의 조약의 집행을 감독하며 동시에 이들 조약은 존속되고 존중될 것이며 관련국들의 대한제국에서의 합법적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통고를 하였다. 그리고 1906년 2월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권 장악의 실행에 나섰다.⁴¹⁾ 일제의 이 통고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열강들과의 조약 체결을 통해 거중조정의 이점을 활용하려던 조선정부의 기도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1905년 고종은 을사늑약 체결 직후인 11월 25일 미국 정부(국무부)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 전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소위 보호조약이 무력과 강압에 의해 강요되었으므로, 그것이 효력이 없고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 조약에 결코 동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⁴²⁾

1906년 6월 22일 고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의 각국 정부에 대한제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전권을 부여받은 특사를 임명하였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문서를 각국 정부들에게 전하고, 일본으로 인해 발생한 난국의 평화로운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이 특사는 헤이그에서 열릴 만국평화회의에서 이 문제의 조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권한을 부여받았다.⁴³⁾

고종이 일본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서 한국특사로 임명한 사람은 미국인 헬버트(Homer Bezaleel

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4개국 공사로 윤용식에서 민영환으로 대체 통보」(1898. 10. 10), 2010.

40) 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13, 112쪽.

41) 노영돈,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한국사론』 41,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쪽 각주 17.

4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한국 황제가 미국에 보낸 항의 전문(1905. 11. 26)」, 2007.

4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군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1922); 한국에 관한 개요」, 2007.

Hulbert)였다. 그리고 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벨기에 및 중국 정부에 특사를 파견하고자 하였다. 고종은 험버트에게 한국의 권익 및 이들 각국 정부에 있는 대한제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권을 부여하였다. 한국정부는 험버트 특사에게 이들 각각의 정부에 한국의 현 정세에 관한 서신을 전달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에 야기된 난제들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훈령을 내렸다. 그리고 고종은 특사에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라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⁴⁴⁾

1906년 6월 고종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식 호소문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일부 각료들의 서명은 협박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 (2) 한국정부는 각료들에게 이 조약의 체결 권한을 결코 부여하지 않았다. (3) 조약에 서명키로 한 각료회의의 그 자체는 짐(고종)의 요청에 의해서나 한국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에 의해 개최된 불법적인 것이다.⁴⁵⁾ 그러나 일제는 헤이그특사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⁴⁶⁾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주목하는 현상들이 증가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 초대통감으로 부임하게 되는 한국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종과의 문답을 정리한 복명서에 보면, 고종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상호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소위 외교 위임이라는 것이 오스트리아-헝가리의 관계와 같고, 혹은 열국이 아프리카에 대함과 동일한 지위에 서는 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 힐난하였다. 이에 이토는 사실을 호도하면서,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의 위임을 받아 외교를 담당할 뿐 일체의 국정은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리고 일제 당국자나 친일단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안에 존재하는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호도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민이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애썼다.⁴⁷⁾

또한 1909년 12월 대한협회가 공포한 시국성명서에서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담겨 있다. 대한협회는 성명서에서 일진회가 황실의 만세와 일등국민을 표방하면서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인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정도와 관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양국과 동일한지? 또한 모든 한국인의 민족(호적)을 일본으로 옮긴다면 즉시 일등국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라고 묻고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안에 어떤 민족적 갈등도 존재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어서 합방은 위임통치라는 뜻인지, 연방정치라는 뜻인지?라고 묻은 것도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질문이었다. 이 성명서는 대한협회 고문 오가키(大垣丈夫)의 초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신문에 게재하려는 것이었다.⁴⁸⁾

4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한국 황제가 일본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강대국에 파견할 특사 임명(1906.6.22)」, 2007.

4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황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 공식 호소문을 전달(1906.6.22)」, 2007.

4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老 황제의 퇴위(1907.7.19)」, 2007.

47)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 「韓國特派大使 伊藤의 복명서」, 1998.

겉으로 보면 일진회의 ‘합방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듯하지만, 밑바탕에는 한일합병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같은 평등, 번영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질문형식을 통해서 시사한 것이다. 대한협회는 이토의 한국정책이 ‘공통이익주의’, ‘자치주의’, ‘평화주의’ 정책을 취한 영국의 식민정책과 유사하다고 보고, 그의 한일 양국의 공통적 이익을 위한 주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대한협회는 일진회와 제휴를 모색하기도 했다. 1909년 12월 4일 일진회가 합방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협회는 합방반대론을 폈다. 하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한협회 총무 윤효정은 합방반대 논리로서 보호정치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이미 열강이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보호체제를 부득이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당시 양국관계의 최선책은 상호 공통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현상유지론’에 있음을 주장하였다.⁴⁹⁾ 이는 통감부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뒤 대한자강회의 고문이던 오가키가 이토의 내락을 얻어 대한협회를 설치했던 태생적 한계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였다.⁵⁰⁾

V. 『鳴蘇士傳』의 한국 전래

헝가리가 ‘鳴蘇士’라는 위인의 이름을 빌어 한국인과 조우하게 된 것은 애국계몽운동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애국계몽운동이란 1905년 11월 을사늑약에 의해 일부 국권이 박탈된 시기부터 1910년까지 완전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개화자강파가 주도한 민력계발과 민족독립역량 양성운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⁵¹⁾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한말에 사회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화된 데에는 량치차오(梁啟超)의 『飲氷室文集』이 깊은 영향을 끼쳤다.⁵²⁾ 특히 한국인의 코슈트에 대한 인식 역시 량치차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

강유웨이(康有爲)의 제자였던 량치차오는 무술변법(1898)이 시태후의 반발로 실패하자, 일본으로 건너가 『清議報』를 발행하여 당시의 세태를 꼬집었고, 수천만 자에 달하는 『음빙실문집』을 지어 그 이론이 종횡으

48) 국사편찬위원회, 『統監府文書』 8, 「韓日合邦 문제에 대한 憲兵隊長 및 警視總監의 보고서 제출 件(1909.12.12)」, 1999.

49) 유영렬, 『애국계몽운동 I-정치사회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31~133쪽.

50) 대한협회의 친일적 성격에 관한 학계의 논쟁이 치열하다. ‘애국과 항일을 대표하는 결사’라는 긍정적 평가에서부터 ‘일진회와 같은 차원의 단체’, ‘겉은 애국, 속은 매국이라는 위장단체’ 등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유영렬은 일진회가 보호론에서 합방론으로 나아간 친일매국단체였다면,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는 합방론을 거부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수용한 보호론 곧 현상유지론에 서서 자강독립을 추구한 애국계몽단체였다고 정의하였다(유영렬, 『애국계몽운동 I-정치사회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90~92쪽). 아무튼 대한협회는 지도부가 일진회와 연합을 획책하는 등 그 성격이 모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13, 118쪽). 창립과정에서 일제와의 타협이 불가피했던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이 후퇴하고 단순히 근대주의에 호르는 취약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이규영, 『한말 애국계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71쪽).

51) 신용하,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한국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72~273쪽. 한편 ‘계몽운동’의 기점을 1904년 러일전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조동걸, 「한말계몽주의의 구조와 독립운동상의 위치」,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 111쪽).

52)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그 영향」,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286~287쪽.

로 힘이 넘쳐 흐르고 오대주에 유행하여 독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는 당대의 평을 얻었다.⁵³⁾ 량치차오는 전통 유가문화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개화사상을 겸비하여 당시의 시국 논평과 시사 분석에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에는 1897년 2월 독립협회가 출판한 『대조선독립협회보』의 외국사정 가운데 「淸國形勢의 可憐」이란 글을 통해서였다. 이 글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무술정변과 량치차오의 이름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이후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논설 가운데 『청의보』나 『음빙실문집』의 내용이 여러 차례 초록되거나 인용되었다.⁵⁴⁾

량치차오는 1902년 『신민총보』 「전기」란에 들어갈 첫 인물로 코슈트를 선택하여 연재에 들어갔다. 코슈트 전기는 바로 그의 첫 전기물이었다. 1902년 3월에 나온 4호를 시작으로 6호와 7호까지 총 세 차례 연재되었다. 제목은 「匈牙利愛國者噶蘇士傳」으로 일본의 이시카와 야스지로(石川安次郎)가 쓴 『루이 코슈트』의 총 20개 장을 12개로 축약한 것이었다.⁵⁵⁾ 량치차오는 이시카와의 글 중 거의 1/3을 옮기지 않았고, 스스로 창작하거나 이시카와 외의 자료를 통해 덧붙인 분량 또한 전체의 1/3에 달했다. 량치차오가 『噶蘇士傳』의 집필을 끝냈을 때 이미 그것은 또 하나의 원본이 되어 있었다.⁵⁶⁾

『ルイ、コッスート』	『噶蘇士傳』
	발단
제1 헝가리 건국의 유래	제1절 헝가리의 국채와 그 역사
제2 그가 태어난 시대/제3 가정 및 교육	제2절 갈소사의 가정형편과 그 유년시대
제4 세체니 백작의 功業/제5 고향의 은인 제6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국의 형세	제3절 갈소사 진출이전의 헝가리 형세와 전대의 인물들
제7 필사한 신문	제4절 의원이 된 갈소사와 그 손으로 쓴 신문
제8 3년간의 옥중생활	제5절 옥중의 갈소사
제9 출옥후의 5년간/제10 代議員에 당선되다	제6절 출옥후의 오년간
제11 프레스부르크의 국회	제7절 프레스부르크의 국회
제12 내란의 봉기	제8절 헝가리의 내란과 그 원인
제13 오스트리아·헝가리의 개전/제14 헝가리의 독립	제9절 헝가리 오스트리아 개전과 헝가리의 독립
제15 부다페스트 성의 수복/제16 두 영웅의 충돌	제10절 부다페스트 성의 수복과 두 영웅의 충돌
제17 코슈트의 사직/제18 무참한 학살	제11절 갈소사의 사직과 헝가리의 멸망
제19 영웅의 말로/제20 헝가리의 수복	제12절 갈소사의 말로와 헝가리의 전도

53) 황현, 『매천야록』 권3, 광무 4년 7월조.

54) 신승하, 「舊韓末 愛國啓蒙運動時期 梁啓超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아세아연구』 41: 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 221~222쪽.

55) 손성준, 「영웅서사의 동아시아적 재맥락화 - 코슈트傳의 지역간 의미 편차」,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348쪽.

56) 손성준, 위의 글, 349쪽.

1848년 이래 헝가리의 혁명운동가 라요시 코슈트의 국제적 인기는 대단히 높았다. 일본의 이시카와 야스지로에게 있어서 코슈트의 나라 헝가리는 홍노족의 혈맥을 공유한 일본의 형제로, 일본 내 보수 집권당의 소극적 국가경영을 질타하는 도구로, 그리고 식민지적 무의식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동원되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코슈트의 비타협적 면모는 삭제되고 만다. 이시카와의 『루이 코슈트』는 코슈트가 이끌어온 헝가리 독립운동이 코슈트가 극력 반대했던 ‘타협’이라는 결말을 낳았음에도, 이시카와 특유의 정치적 재맥락화 속에서 코슈트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메시지를 발산하였다. 량치차오에 의해서 중국에 수용된 코슈트는 일본인종의 형제가 아닌 황인종 전체의 가능성이 되었다. 량치차오는 코슈트의 혁명가적 급진성 대신 중재자적 면모를 강화시켰다.⁵⁷⁾

한국 역시 1880년대 이래로 ‘백인종과 황인종의 투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에,⁵⁸⁾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승리로 기술된 헝가리와 코슈트의 서사는 매력적인 콘텐츠일 수 있었다. 한국에서 량치차오의 『갈소사전』을 최초로 번역 소개한 것은 잡지 『朝陽報』였다. 『갈소사전』은 국한문체로 번역되어 『조양보』 9호(1906.10)와 11호(1906.12) 두 차례에 걸쳐 실리게 된다. 그러나 『조양보』가 1907년 1월 발간된 제12호를 끝으로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재는 총 12개 절로 구성된 량치차오의 텍스트 중 제4절의 후반부 지점에서 중단되었다.⁵⁹⁾

량치차오의 『噶蘇士傳』을 다시 국내에서 번역한 인물은 震庵 李輔相(1882-1948)이라는 인물이었다. 이보상은 근대 한문소설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한자강회월보』·『기호홍학회월보』·『대한협회회보』·『대동보사월보』·『장학보』 등 계몽운동 잡지에 활발하게 투고하면서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서다 관직에 진출한 이후 친일의 행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⁰⁾

이보상의 번역은 량치차오나 『조양보』의 경우와는 달리, 직역의 모범답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보상이 번역한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의 목차이다.⁶¹⁾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 目次
발단
제1절 홍아리의 국제 급 역사
제2절 갈소사의 가세 급 유년시대

57) 손성준, 위의 글, 331~332, 348쪽.

58)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5, 224쪽; 손성준, 위의 글, 356쪽 재인용.

59) 손성준, 위의 글, 357쪽.

60) 이보상은 1905년 文官銓考所 정거시험에서 초고에 합격하고 회고에 탈락하였으나, 9회 임시시험에서 탁지부 추천을 받아 응시한 뒤 합격하였다. 1908년 8월 탁지부 주사, 합병 후 1910년 경남 울산군 서기에 임명되었고, 1912년 8월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 경남 의령군 서기로 있으면서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1년 12월 경남 남해군수로 승진 부임해 1924년 12월까지 재직했다. 1922년 10월 남해군 大東斯文會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했다. 신명식 외 편,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891~892쪽; 김성철, 「일제강점기 한문소설 작가 震庵 李輔相의 행적과 작품 활동 연구」, 『한국학연구』 4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2, 314쪽 재인용.

61) 梁啓超(著), 李輔相(譯),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 중앙서관·박문서관, 1908, 1~2쪽.

제3절 갈소사가 未出來한 이전의 흥국형세 급 前輩
제4절 의원의 갈소사와 報紙를 手寫함이라
제5절 옥중의 갈소사
제6절 출옥한 후 5년
제7절 普黎士堡의 국회
제8절 흥국의 내란과 급 기 원인
제9절 흥국개전 급 흥국의 독립
제10절 布打城의 극복 급 양웅의 충돌
제11절 갈소사의 사직 급 흥아리의 멸망
제12절 갈소사의 말로 급 흥아리의 전도

이보상은 『갈소사전』의 서문에서 갈소사는 亞洲의 사람으로 歐洲에 공을 세웠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 아주가 일약 분발하는 데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주는 仁義禮讓이라는 좋은 풍속을 지닌 만큼 다시 각성한다면 사소한 노력으로도 일약 전진할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구주가 문명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시초에는 군주와 재상이 학정을 하고 강한 이웃나라가 국정을 어지럽혔으며 종교가 서로 다투고 종족이 각자 경쟁하여 유형이 낭자하였고 기아가 끊임없이 이어져 거의 잔존하는 자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에, 이에 격발되고 발분하여 오늘날이 있는 데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아주는 훌륭한 군주와 현명한 재상들의 정치와 仁義禮讓의 풍속에 무뎠었는데, 이미 무뎠었다가 편안함에 빠지게 되었고, 이미 편안함에 빠졌다가 태만하게 되었고, 태만함이 또 황폐하고 흥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본래 서구에서 격발된 것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해도 팔다리를 움직이는 아주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일약 전진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도 그러한 일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도리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지금 아주는 깊이 잠기고 있지만, 나는 아주가 일약 분발할 것임을 안다. 따라서 이 책을 번역한 까닭은 동포들이 분발하는 데 일조하고자 해서일 뿐이다.⁶²⁾

문학 연구자들은 이보상이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중앙서관·박문서관, 1908)과 『李太利少年』(중앙서관, 1908)을 번역하고 자신이 서문을 썼으며, 『大東風雅』(우문당, 1908)의 서문을 썼는데, 이 세 작품의 서문은 공통적으로 ‘유교적 윤리의 강화’를 주장하려는 것이었다는 데 주목한다. 그는 조선을 바로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교적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⁶³⁾ 이보상은 패배감에 젖어있는 자국민들을 향해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이 사실 놀라운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일갈을 한 것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유교적 사고와 감각’을 서구와의 접촉 속에서 표출하는 비슷한 사례들은 비일비재하였다고 평

62) 梁啓超(著), 李輔相(譯),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 「序」.

63) 김성철, 앞의 글, 318쪽.

가하였다.⁶⁴⁾

그러나 을사늑약 직후에 『갈소사전』이 한국인들에게 유행한 것은 오스트리아 황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분투했던 코슈트의 민족주의와 독립에 대한 열망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갈소사전』의 제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헝가리 민족을 이끌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코슈트의 격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1848년 3월 코슈트가 보헤미아 지방의 신분제의회에서 오스트리아 귀족주의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헝가리의 주권 회복을 요구하는 당시의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금일의 일은 실로 헝가리국을 유지하는 不二法門이오, 아국민의 생사문제라. 제군이 만일 자유를 사랑하느냐? 청컨대 인내하여 이 내부의 어려움을 削平하기를 기다리면 우리들과 자손이 영원히 독립된 천지에서 살아 숨 쉬는 것을 영원토록 얻을 것이니, 그 성공도 오늘에 있고, 그 패함도 오늘에 있고, 그 삶도 제군에게 있고, 그 죽음도 제군에게 있으니...(중략)...제군이여! 그 고상하고 순결한 애국심을 각자 내어 세계에 서면 누가 감히 단언하되 지옥에 恒河沙數 같은 마귀가 비록 서로 협공할지라도 헝가리를 어찌지 못할 것이리라⁶⁵⁾(『갈소사전』의 본문을 현대어투로 변안하였음 - 필자)

이민족의 압제에 대항하여 헝가리의 독립을 쟁취할 것과 헝가리 민족의 애국심을 요구한 코슈트의 절규는 이보상이 번역한 『갈소사전』 뿐만 아니라, 이후 각종 애국계몽 관련 잡지에서 인용되면서, 일제의 침략에 직면한 한국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Ⅵ. 애국계몽운동에 반영된 코슈트

이보상의 『갈소사전』 외에도 1909년에 이르면 각종 애국계몽단체의 잡지에 ‘갈소사’가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서북학회월보』에서는 난관을 뚫고 뜻을 이룬 코슈트의 毅力을 칭송했다.⁶⁶⁾ 『대한홍학보』에서는 20세기에 我韓 청년들이 불운역경의 시절을 맞이하여 國滅人奴의 화를 면하려거든 불멸의 國魂을 扶植하여 殺身成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서 동서고금의 인물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헝가리의 ‘갈소사’가 주장한 평등권론을 주목하라고 하였다.⁶⁷⁾ 민족적 차별에 저항한 코슈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으로 읽힌다. 『대동학회월보』에서는 지금 한국의 시세형편상 精兵百萬과 大砲百柄이 있으면 세계에 웅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병론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문의 힘임을 강조하고, 역시 동서고금의 위인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코슈트가 옥중에서도 영·형자전과 셰익스피어의 시문을 암송하는 데 매진하였음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64) 손성준, 앞의 글, 364~365쪽.

65) 梁啓超(著), 李輔相(譯),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 중앙서관·박문서관, 1908, 33쪽.

66) 『서북학회월보』 11, 「잡지: 論毅力」(1909.4.1).

67) 『대한홍학보』 8, 「논설: 青年國之元氣(吉昇翊)」(1909.12.20).

촌음을 아껴 학문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괘목상대하게 될 것임을 설파하였다.⁶⁸⁾

이와 아울러 서구 제국의 戰史 및 위인의 구국항쟁기 같은 전기들이 개화기에 수용되면서 서구의 역사적 지식을 확대시켜 주는 한편 민족주의적인 自保思想을 고취시켰다. 이들이 주로 국권을 탈취당한 1910년 이전에 그 전야적 고비에서 많이 번역소개 되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와 같은 책으로는 『泰西新史』(1897)를 비롯하여 『波蘭末年戰史』(1897), 『法國革新戰史』(1899), 『埃及近世史』(1900), 『美國獨立史』(1906), 『萬國史』(1906), 『越南亡國史』(1906), 『意大利獨立史』(1907), 『比律賓戰史』(1907), 『拿破崙戰史』, 『伊太利建國三傑傳』(1906), 『比斯麥傳』(1907),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1908), 『華盛頓傳』(1908), 『彼得大帝』(1908) 등이 있었다.⁶⁹⁾ 이들 서적의 출간은 이미 과거적 사실로 고정되어 버린 역사를 산 현실에 적용하려는 의도의 결과였다.⁷⁰⁾

한편 1895년부터 학부에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1905년에 이르기까지 학부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다수의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이 가운데 역사교과서는 16종(한국사 9종, 외국사 7종)이나 되었다. 특히 계몽운동가들이 주도한 사립학교에서는 한국사를 비롯한 각국의 역사 교육이 중시되었고, 일반 연구자나 각종 단체(특히 학회)에서 간행한 역사책을 교과서로 사용하였다.⁷¹⁾

이와 같이 역사물이 교과서로 다수 등장하면서, 통감부에서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1908. 8.28)을 제정하여 학교의 교과서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별도로 출판법(1909. 5. 5)을 앞세워 통제를 실시하였다. 출판법 제16조의 내용은 “내부대신은 본법 시행 전에 이미 출판된 저작물로 안영·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하고 版本과 印本을 압수한다”는 것이어서 출판된 도서뿐만 아니라 그 판·인본까지 압수하여 철저히 탄압하였다. 1909년 5월 5일 내부대신은 출판법 제16조에 의거한 고시를 발표하여 다음 도서의 발매·반포를 금지시켰다.⁷²⁾

『유년필독』 1·2권(현재), 『국문월남망국수』 1책(리상익), 『유년필독석의』 상·하(현재), 『20세기 조선론』 1책(김대희), 『중등교과동국사략』 2책(현재), 『금수회의록』 1책(안국선), 『월남망국사』 1책(현재), 『우순소리(笑話)』 1책(윤치호)

1909년 5월 5일에 금지도서를 발표한 통감부는 교과용검정제도가 처리되면서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도서들을 이에 포함시켜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읽지 못하게 하였다.

『초등대한역사』 1책(정인호), 『보통교과동국역사』 2책(현재), 『신정동국역사』 2책(원영의·유근), 『대동역사략』 1책(유성준), 『대한신지지』 2책(장지연), 『대한지지』 2책(현재), 『최신고등대한지지』 1

68) 『대동학회월보』 15, 「愛惜寸陰(金文演)」(1909.4.25).

69) 河東鎬, 『開花期小說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1972, 31~33쪽.

7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 「IV. 국어·국문학 연구」, 1981, 355쪽.

71) 이균영, 『한말 애국계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140쪽.

72) 『官報』, 융희 3년(1909) 5월 7일, 내부고시 27호.

책(정인호), 『문답대한신지지』 1책(박문서관 편집부), 『최신초등대한지지』 1책(정인호), 『최신초등소학』 4책(정인호), 『고등소학독본』 2책(휘문의숙 편집부), 『국문과본』 1책(원영의), 『국민소학독본』 1책(학부), 『초등소학』 4책(국민교육회), 『소학한문독본』 2책(원영의), 『녀자독본』 2책(장지연), 『부유독습』 1책(강화석), 『고등소학수신서』 1책(휘문의숙 편집부), 『초등윤리학교과서』 1책(안중화), 『초등소학수신서』 1책(유근), 『중등수신교과서』 2책(휘문의숙 편집부), 『독습일어정칙』 1책(정운복), 『정선일어대해』 1책(박중화), 『실지응용작문법』 1책(최재학), 『음빙실문집』 2책(랑치차오), 『국가사상학』 1책(정인호), 『민족경쟁론』 1책(유호식), 『국가학강령』 1책(안중화 역), 『음빙실자유서』 1책(전환기 역), 『준비시대』 1책(중앙總部), 『국민須知』 1책(김우식), 『국민자유진보론』 1책(유호식), 『20세기의 대참극 제국주의』 1책(변영만), 『세계삼괴물』 1책(변영만 역), 『강자의 권리경쟁』 1책(유문상), 『대가론집』 1책(유문상 역), 『청년입지론』 1책(유문상 역), 『남녀평등론』 1책(최학소), 『片片奇談경세가』 1책(홍중은), 『소아교육』 1책(임경재), 『애국정신』 1책(이채우 역), 『애국정신답』 1책(이채우 역), 『몽견제갈량』 1책(유원표), 『乙支文德』 1책(신채호), 『이태리건국삼걸전』 1책(신채호), 『噶蘇士傳』 1책(이보상 역), 『華盛頓傳』 1책(이해조), 『波蘭末年戰史』 1책(역자불명), 『미국독립사』 1책(현은), 『애급근세사』 1책(장지연), 『정치소설瑞士建國誌』 1책(대한매일신보사), 『정치소설서사건국지』 1책(김병현) (1911. 7. 10 금지 도서)

이상의 발매 및 반포금지도서들은 그 초판 간행연도가 대부분 1908년 이전이며, 학부 불인가도서 또는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된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서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 역사교과서, 각국의 흥망사 및 독립사, 영웅·위인의 전기, 민족의식을 고취한 도서, 세계정세를 주제로 한 도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은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일제의 침략이 진행되는 현실을 비판 또는 풍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서 가운데 청년들이 즐겨 읽던 책은 각국의 흥망사나 독립사 또는 영웅과 위인의 전기 등이었는데 일제는 이들 도서들을 발매 및 반포금지 시키고 이를 압수하여 수십만 권을 불사르기도 하였다.⁷³⁾

총독부 산하 경무총감부에서도 민족의식을 말할기 위해 많은 서적의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압수하였는데, 그 서목은 다음과 같다.

『初等大韓歷史(國文·漢文)』, 『普通教科東國歷史』, 『新訂東國歷史』, 『大東歷史略』, 『大韓新地誌』, 『大韓地誌』, 『最新高等大韓地誌』, 『問答大韓新地誌』, 『最新大韓新地誌』, 『最新大韓初等地誌』, 『最新初等小學』, 『高等小學讀本』, 『國文課本』, 『初等小學』, 『國民小學讀本』, 『女書』, 『初等倫理學教科書』, 『獨習日語正則』, 『精選日語大海』, 『實地應用作文法』, 『國家思想學』, 『民族競爭論』, 『國家學綱領』, 『飲水室自由書』, 『準備時代』, 『飲水室文集』, 『國民須知』, 『國民自由進步論』, 『世界三怪物』, 『二十世紀大慘劇帝國主義』, 『強者の 權利競爭』, 『大家論集』, 『青年立志編』, 『片片奇談警世歌』, 『小兒教育』, 『愛國精神』, 『愛國精神談』, 『夢見諸葛亮』, 『乙支文德(國漢文)』, 『伊太利建國三傑傳』, 『噶蘇士傳』, 『華盛頓傳』, 『波蘭末年戰史』, 『美國獨立史』, 『埃及近世史』, 『小學漢文讀本』, 『男女評權論』(以上 51種)⁷⁴⁾

73) 李萬珪, 『朝鮮教育史』 하, 을유문화사, 1947, 172쪽.

74) 『조선총독부관보』(1910.11.19); 『매일신보』(1910.11.16).

임시정부도 합병 이후 일제가 저지른 만행 가운데 모든 결사와 언론기관을 박멸한 후 도서의 박멸에 착수한 점을 예로 들고, 『갈소사전』을 비롯한 서목을 예시하였다. 그것은 『初等本國歷史』, 『初等本國地誌』, 『中等本國歷史』, 『中等本國地誌』, 『幼年必讀』, 『東國史略』, 『女子國文讀本』, 『乙支文德傳』, 『李舜臣』, 『國民須知』, 『大韓地誌』, 『大韓歷史』, 『崔勉菴集』, 『昭義新編』, 『陽明先生實記』, 『飲冰室文集』, 『中國魂自由書』, 『越南亡國史』, 『神州光復誌』, 『美國獨立史』, 『瑞士建國誌』, 『意大利獨立史』, 『法國革命史』, 『波蘭亡國史』, 『埃及近世史』, 『華盛頓傳』, 『意太利三傑傳』, 『噶蘇士傳』, 『大彼得傳』, 『夢拜金太祖』, 『夢見諸葛亮』, 『禽獸會議錄』, 『演說法方』, 『笑談』, 『朝鮮論』, 『自由鍾』, 『萬歲歷(曆)』, 『精神教育』, 『英雄淚 國史悲』, 『血淚』, 『青年立志編』 등 모두 30여 종, 20여만 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 일제는 이들 책을 소유한 자가 있으면 매일 주의자로 낙인찍어 핍박하였던 사실도 명기하였다.⁷⁵⁾

의병투쟁으로 일제의 한국병합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애국계몽운동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애국계몽 인사들로부터 근대교육을 받은 중견 간부들이 공급되어 장기적 독립항전으로 발전하였다.⁷⁶⁾ 1910년대 이후 독립운동에 참여한 계층이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고, 1919년 3.1운동 주도층이 학생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애국계몽운동의 의의는 확인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체가 아무런 이의 없이 민주공화제로 결정되었던 것도 애국계몽운동의 확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⁷⁷⁾ 일제의 금지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던 『갈소사전』도 그러한 시대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다.

애국계몽의 일환보다 실제 독립운동의 측면에서 헝가리가 등장하는 것은 1910년이다. 그것도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1910년 8월 23일 하오 4시 블라디보스토크의 『다리요카야 우크라이나』 신문을 통해 한일합병 확정지의 비보를 전해들은 한인동포 200명은 즉시 한인학교에 집결하여 聲明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유인석·이범운·김학만·차석보·김좌두·김치보 등의 명의로 된 취지서를 배포하였다. 성명회는 영·불어로 작성된 항의서한에 중국과 러시아 지역 한인 8,624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영국·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중국·러시아·미국 등 정부에 발송하였다.⁷⁸⁾ 그러나 일본의 항의를 받은 러시아 당국은 9월 13일 개척리를 포위하고 42명의 한인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 이 가운데 김좌두·안한주·이규풍·권유상·이기·이치권 등이 10월 10일 이르쿠츠크로 추방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헝가리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들이 국내로 전해졌다. 1931년 잡지 『동광』⁷⁹⁾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농업개혁을 다루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러시아혁명과 이웃나라 헝가리 혁명이 유고슬라비아에 광범한 노동, 농민운동(1918~20)을 일으켜, 부르주아지는 마침내 굴복하여 1919년 1월 농업개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기술하였다.⁸⁰⁾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金億이 1932년 헝가리에 있는 만국에스페란토협회로부터 백과사전을 편찬하는데 조선에 관한 것을 집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사계의 권위자들이 한글로 써

7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圖書의 焚毀』.

76) 신용하,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한국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70쪽.

77) 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13, 124쪽.

78) 윤병석, 『李相高傳』, 일조각, 1984, 145쪽.

79) 1926년 주요한을 편집 겸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된 잡지. 수양동우회의 기관지 역할을 함.

80) 『동광』 25, 「논설: 유고國의 농업개혁」(1931.9.4).

주면 이것을 김억이 다시 에스페란토로 번역해서 보낼 계획이라는 기사도 보인다.⁸¹⁾ 헝가리는 반파시스트의 독재하에 있어 대지주의 이익을 위하여 농민을 제어하는 데 힘을 다하고 소협상국을 위협한다는 기사도 보인다.⁸²⁾ 우연히 또는 법률적으로 군주가 2국 이상의 국가에 군림하는 결과 발생하는 결합관계-스페인과 영국 통일의 경우 내지 세계대전까지의 오스트리아-헝가리의 관계 등이 그 실례라는 기사도 보인다.⁸³⁾ 그밖에 각종 신문 등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와의 충돌로 야기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경과를 소개하거나,⁸⁴⁾ 헝가리에 볼셰비키혁명운동이 일어났다는⁸⁵⁾ 등의 헝가리에 대한 단편적인 동정 기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해방 후 헝가리는 1948년 11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고,⁸⁶⁾ 1989년에 남한과 수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VII. 맺음말

코슈트는 1848년 헝가리에서 전개된 3.15 시민혁명과 독립전쟁을 이끈 인물로서 유명하며, 이 때문에 헝가리 민족사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억압과 압제가 자행되던 시기에 헝가리 마자르 민족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아 오스트리아의 귀족주의 지배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 결과 헝가리 민족의 봉기를 이끌었으며, 비록 그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1867년의 대타협을 통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수호통상조약을 비준한 것은 1893년 10월 5일이었다. 헝가리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조선 정부가 선택한 개화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은 미국·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벨기에·덴마크의 순으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각국 공사들이 조선에 파견되었으며, 조선의 공사들이 조약을 체결한 수많은 나라들에 파견되어 이들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선은 거중조정 조항을 이용하여 서구열강끼리의 견제를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 고종은 이 조약이 일제의 무력과 강압에 의해서 강요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는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 사실을 미국을 비롯한 조약 대상국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906년 6월 22일 고종은 미국인 헬버트를 한국특사로 임명하여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벨기에·중국 등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일본으로 인해 발생한 난국의 평화로운

81) 『동광』 37, 「金億군의 백과사전 집필」(1932.9.1).

82) 『동광』 37, 「(해외논단) 대토론 제목 자본주의 문명의 긍정? 부정?」(1932.9.1).

83) 『삼천리』 10-1, 「동군관계」(1938.1.1).

84) 『신한민보』(1917.8.16), 「구주 산하를 피로 물들인 대전쟁 제3년」.

85) 『신한민보』(1925.7.9), 「헝가리에 볼셰비키 혁명운동」.

86) 에트레 산도르 외, 「한국-헝가리 교류의 첫 장」, 『관훈저널』 47, 관훈클럽, 1989.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들을 기대하였으나, 당시국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일제는 을사늑약 체결 직후 이들 나라들에 일제의 한국외교권 박탈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관련국들의 대한제국에서의 합법적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다.

코슈트가 헝가리의 민족영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06년 말에 간행된 『조양보』를 시작으로 하여, 1908년 근대 한문소설 작가인 이보상의 번역을 통해서였다. 이 시기의 변화로 주목되는 것은 을사늑약 체결 때부터 고종에게 의심받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 존재하는 민족갈등이 『갈소사전』의 번역 단계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을사늑약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관계처럼 양 민족이 평등한 이원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호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안의 민족 차별에 항거한 ‘갈소사’ 즉 코슈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는 민족 독립을 위해 힘쓴 애국자이자, 서양인에 맞서 싸운 동양인종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미담은 『서북학회월보』·『대한홍학보』·『대동학회월보』 등과 같은 계몽잡지에 소개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민족적 차별에 저항하여 평등권을 주장한 의사나, 옥중에서도 존엄을 아끼 공부에 매진했던 선비, 즉 실력양성론의 표본으로 선전되었다.

각국의 흥망사 및 독립사, 영웅·위인의 전기, 민족의식을 고취한 도서 등이 유행하던 애국계몽운동시기의 역사물들이 교과서로 다수 등장하면서, 일제는 통감부에서 총독부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금서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도서의 발매와 반포를 금지시켰다. 『갈소사전』은 일관되게 이러한 금서목록에 들어있으면서 탄압을 받았다. 이 책이 당시 청년들에게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일제의 침략의도를 비판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애국계몽운동 시기 근대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장기적 독립항전의 중견인물들로 성장해 간 것을 고려할 때 일제의 금지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던 『갈소사전』은 청년들의 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근대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헝가리와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갈소사전』이라는 번역서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헝가리를 인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시기에 코슈트의 전기를 통해서 한국 청년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일제의 침략의도를 비판했던 사실은 앞으로 한국과 헝가리가 열어나갈 미래에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내용이 민족차별에 대한 각성과 제국주의의 침략성에 대한 성찰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면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5월 29일(음) 병술 2번째 기사; 『官報』, 융희 3년(1909) 5월 7일, 내부고시 27호; 『동광』 25, 「논설: 유고國의 농업개혁」(1931.9.4); 『동광』 37, 「金億군의 백과사전 집필」(1932.9.1); 『동광』 37, 「(해외논단) 대토론 제목 자본주의 문명의 긍정? 부정?」(1932.9.1); 『대동학회월보』 15, 「愛惜寸陰(金文演)」(1909.4.25); 『대한홍학보』 8, 「논설: 靑年國之元氣(吉昇翊)」(1909.12.20); 『삼천리』 10-1, 「동군

관계」(1938.1.1); 『서북학회월보』 11, 「잡저; 論毅力」(1909. 4.1); 『신한민보』(1917.8.16), 「구주 산하를 피로 물들인 대전쟁 제3년」; 『신한민보』(1925.7.9), 「헝가리에 불세미키 혁명운동」; 『조선총독부관보』(1910.11.19); 『매일신보』(1910.11.16.); 梁啓超(著), 李輔相(譯), 『匈牙利愛國者 噶蘇士傳』, 중앙서관·박문서관, 1908;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3, 1969;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 「韓國特派大使 伊藤의 복명서」, 1998; 국사편찬위원회, 『統監府文書』 8, 「韓日合邦 문제에 대한 憲兵隊長 및 警視總監의 보고서 제출 件」(1909.12.12), 1999; 황현 저, 김준 역, 『완역 매천야록』, 교문사, 199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7, 200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군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1922); 한국에 관한 개요」, 200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한국 황제가 미국에 보낸 항의 전문(1905.11.26.)」, 200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군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1922); 한국에 관한 개요」, 200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한국 황제가 일본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강대국에 파견할 특사 임명(1906.6.22.)」, 200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황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 공식 호소문을 전달(1906.6.22.)」, 200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老 황제의 퇴위(1907.7.19.)」, 200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 「오스트리아가 조선과 통상조약 협상을 위해 대표 파견(1890. 7.28.)」, 200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 「오스트리아 전함 트리니호의 도착(1890.10.1.)」, 200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민영환을 유럽 7개국 공사로 임명」(1897. 1.18.),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다음 문서에 첨부된 서류」(1897.9.22.),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오스트리아-헝가리 대사관의 윤용식 공사 임명에 대한 프랑스의 동의 여부 통보 요청」(1898. 9.6.),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4개국 공사로 윤용식에서 민영돈으로 대체 통보」(1898.10.10.),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4개국 공사로 민영돈에서 이범진으로 교체 및 민영환을 주미공사로 임명」(1899.3.21.),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3개국 공사 이범진에 관한 보고」(1900.5.8.),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이범진 공사의 파리 출발 전 프랑스 대통령 접견 요망」(1900.6.5.),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4(한불관계자료), 「유럽4개국 공사로 윤용식에서 민영돈으로 대체 통보」(1898.10.10.),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 「TV. 국어·국문학 연구」, 1981;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39,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2002.

고정휴,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상협, 『헝가리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김원모, 『近代韓國外交史年表』, 단대출판부, 1984.

유영렬, 『애국계몽운동 I-정치사회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윤병석, 『李相高傳』, 일조각, 1984.
- 이균영, 『한말 애국계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 李萬珪, 『朝鮮教育史』 하, 을유문화사, 1947.
-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 河東鎬, 『開花期小說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1972.
- 초머 모세, 『한반도를 방문한 헝가리인들의 기억 비망록』, 집문당, 2009.
- 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13.
- 김민호, 「서영해의 재불 선전활동과 독립운동」, 『서강인문논총』 53,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 김성철, 「일제강점기 한문소설 작가 震庵 李輔相의 행적과 작품 활동 연구」, 『한국학연구』 4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2.
- 김새미,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대타협안의 한계와 군악대·군대문화현상을 통한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유럽연구』 35: 4, 한국유럽학회, 2017.
- 김지영, 「두 가지 정체성의 공존: 헝가리인의 비(非) 유럽적 기원과 유럽적 '자기인식」, 『통합유럽연구』 6, 2013.
- 김지영,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와 동유럽 민족 국가의 성립요인 연구」,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52,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9.
- 노영돈,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한국사론』 41, 국사편찬위원회, 2004.
- 박영재,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국가체제와 민족문제」, 『경주사학』 26, 경주사학회, 2007.
- 손성준, 「영웅서사의 동아시아적 재맥락화-코스투傳의 지역간 의미 편차」,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신승하, 「舊韓末 愛國啓蒙運動時期 梁啓超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아세아연구』 41: 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
- 신용하,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한국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그 영향」,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 장석홍,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불특파원 서영해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 조동걸, 「독립운동의 개념」, 『우사조동걸전집 3권 한국독립운동사총설』, 역사공간, 2011.
- 조동걸, 「한말계몽주의의 구조와 독립운동상의 위치」,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
- 에트레 산도르 외, 「한국-헝가리 교류의 첫 장」, 『관혼저널』 47, 관혼클럽, 1989.
- 초머 모세, 「헝가리 한반도사 연구 시론: 한반도사 관련 출판물과 한국사 교육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회, 2015.

펜들러, 「19C와 20C 轉換期の 韓國에 관한 오스트리아·헝가리 外交資料」, 『한국정치외교사논총』 6, 한국 정치외교사학회, 1990.

Mozes Csoma,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its comparison with the Hungarian struggle for freedom in the mid 19th century.*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Hungary in Modern Times

Park, Sung-soon*

Lajos Kossuth(噶蘇士) is famous for leading 3.15 Civil Revolution in 1848 and independence war, therefore he is respected as a national hero in Hungary. In the period of oppression he directly criticized the aristocratism control system of Austria with aspiration of Magyar independence. As a result he led Hungarian struggle, although he didn't want, took a big role to make a birth of Austro-Hungary Empire through Ausgleich in 1867.

At first Kossuth was introduced to Korea as a national hero of Hungary through *Joyang-bo*(朝陽報) in the end of 1906 and the translation of Yi Bo-sang who was Chinese character novel writer in 1908. The thing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at that time, the national conflict in Austro-Hungary Empire was vividly revealed in the step of translation of *Galsosa Jeon*. Japanese Imperialism shuffled Eulsa Treaty in 1905 as an equal dual system like the relationship of Austro-Hungarian. But the story on Kossuth spreaded, Korean came to know the national discrimination in Austro-Hungary Empire, and Kossuth as a patriot to fight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an Oriental race against Westerner.

Therefore the praiseworthy anecdotes on Kossuth were introduced in many enlightenment magazines like *Seobuk Hakhwae Weolbo*, *Daehan Heunghakbo*, *Daedong Hakhwae Weolbo* etc. The magazines advertised him as a symbol of martyr to struggle against the national discrimination and claimed the right of equality. So *Galsosa Jeon* took an important role of lesson for Korean young men at that time to emphasize patriotism and criticize Japanese policy of aggression.

[Key Words] Lajos Kossuth(噶蘇士), Austro-Hungary Empire, *Galsosa Jeon*,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